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사진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 단일집단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이 정 은

2014년 8월

사진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 단일집단연구

지도교수 송 재 흥

이 정 은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이정은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서기명



위 원

김민호



위 원

송재흥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4년 8월



The Effects of Phototherapy on the
Self-Ex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with Low-Income Children
: A Single-Group Study

Lee, Jeong Eun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Jae H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ug. 2014

국 문 초 록

사진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 단일집단연구

이 정 은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송재홍

이 연구는 사진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진치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사진치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셋째, 사진치료 단계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제주시에 소재한 B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저소득층 아동 4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주 2회, 총 10회기의 사진치료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검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하여 나타내었으며, A-B-A설계에 따라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를 작성하여 기초선 I · 처치 · 기초선 II 기간의 점수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리고 사진치료 과정을 촬영한 비디오와 관찰기록을 토대로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 변화를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아동은 사진치료를 통해 자기표현검사와 자기표현 행동관찰기록표 점수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사진치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상아동은 사진치료를 통해 대인관계검사와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 점수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사진치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상아동은 사진치료 단계에 따라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사진치료는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진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사진 매체를 사용한 예술치료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사진치료, 저소득층 아동, 자기표현, 대인관계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문제	2
3. 용어의 정의	3
1) 사진치료	3
2) 저소득층 아동	3
3) 자기표현	3
4) 대인관계	3
II. 이론적 배경	5
1. 사진치료	5
1) 사진치료의 개념	5
2) 사진치료의 접근방법	6
3) 사진치료와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10
2.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12
1) 저소득층 아동의 개념	12
2) 자기표현의 개념	14
3) 대인관계의 개념	15
4) 저소득층 아동과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16
3. 사진치료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18
III. 연구방법	20
1. 연구 설계	20

2. 연구 대상	20
3. 측정 도구	21
1) 자기표현검사	21
2) 대인관계검사	22
3) 행동관찰기록표	23
4) 아동별 행동 변화 내용	24
4. 처치 도구 : 사진치료 프로그램	25
5. 자료 분석	27
IV. 연구결과	28
1. 사진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28
1) 자기표현검사의 점수 변화	28
2) 자기표현 행동관찰기록표의 점수 변화	30
2. 사진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31
1) 대인관계검사의 점수 변화	31
2)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의 점수 변화	33
3. 사진치료 단계별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 변화	35
V. 논의	39
VI. 결론 및 제언	43
1. 결론	43
2. 제언	44
참고문헌	46
Abstract	50
부 록	52

표 목 차

<표 III-1> 연구대상의 특성	21
<표 III-2> 자기표현검사 문항 구성과 신뢰도	22
<표 III-3> 대인관계검사 문항 구성과 신뢰도	23
<표 III-4> 행동관찰기록표 문항 구성	24
<표 III-5> 사진치료 프로그램 구성	25
<표 III-6> 사진치료 프로그램 회기 절차	27
<표 IV-1> 자기표현 사전·사후검사 결과	28
<표 IV-2> 자기표현 행동관찰기록표 결과	30
<표 IV-3> 대인관계 사전·사후검사 결과	32
<표 IV-4>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 결과	34
<표 IV-5> 사진치료 단계별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 변화	36

그 립 목 차

[그림 IV-1] 자기표현 사전·사후검사 결과	29
[그림 IV-2] 자기표현 행동관찰기록표 결과	31
[그림 IV-3] 대인관계 사전·사후검사 결과	33
[그림 IV-4]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 결과	35
[그림 부-1] 1회기에 수행한 아동별 작업 결과	59
[그림 부-2] 2회기에 수행한 아동별 작업 결과	60
[그림 부-3] 3회기에 수행한 아동별 작업 결과	61
[그림 부-4] 4회기에 수행한 아동별 작업 결과	63
[그림 부-5] 5회기에 수행한 아동별 작업 결과	64
[그림 부-6] 6회기에 수행한 아동별 작업 결과	65
[그림 부-7] 7회기에 수행한 아동별 작업 결과	66
[그림 부-8] 8회기에 수행한 아동별 작업 결과	67
[그림 부-9] 9회기에 수행한 아동별 작업 결과	69
[그림 부-10] 10회기에 수행한 아동별 작업 결과	70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를 이루어가며 성장한다. 대인관계는 한 개인이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가족, 학교, 사회 속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형성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표현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Adler(1982)에 의하면, 자기표현이 부족한 사람은 소극적 행동으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이 어렵고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진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지 못하는 무능력에 대해 만성적으로 불안 및 긴장감을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권석만(1995)은 대인관계가 원만할 경우에는 정체감 확립, 건전한 성격발달, 행복감, 인간의 욕구만족이 이루어지지만, 대인관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불안, 우울, 욕구좌절, 소외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는 아동기는 가족 외의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성숙해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학교생활을 통해 또래집단의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되며, 운동능력과 언어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욕구를 쉽게 표현하거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정옥분, 2004). 이러한 발달 영역에 속해있는 저소득층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물질적 자원의 부족, 부모양육의 결핍 등의 부정적 조건에 놓여 성장하게 된다. 2008년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7.8%, 상대빈곤층은 11.5%로 아동 8명 중 약 1명이 저소득층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저소득층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발육부진과 같은 신체적 문제, 학습부진 등의 인지적 문제, 그리고 우울과 불안으로 인해 나타나는 공격성, 반사회성 등의 행동적 문제이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바람

직한 인간관계 모델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박정란, 서홍란, 2001).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저소득층 아동은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가족,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고립, 회피 혹은 충동적, 공격적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갖게 되는 저소득층 아동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고자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심리치료 기법들이 연구되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김선이, 2005; 김현수, 2013; 이윤정, 박성현, 2011; 임선희, 원상화, 2011)에서는 연극치료, 집단미술치료, 게슈탈트예술치료, 인지행동통합 예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술매체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을 활용한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연숙, 현혜연, 하동환(2007)은 사진 활용에 관해 ‘표현’은 이미지의 생산을 의미하며, 이미지는 표현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미지의 활용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고, 느끼고, 상상한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을 활용한 자기표현은 단순히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을 넘어 시각적 언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진을 통한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 욕구 또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사진 매체를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표현하며,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인 사진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사진치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 둘째, 사진치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 셋째, 사진치료 단계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3. 용어의 정의

1) 사진치료

사진치료는 사진 매체를 통해 자신의 주변을 탐색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사진치료 과정에서 자신을 탐색하며, 사진으로 표현하고, 사진감상 및 발표를 통해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2) 저소득층 아동

저소득층 아동은 보건복지가족부(2012)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3) 자기표현

자기표현은 타인에게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자기표현은 최명심(2000)의 자기표현검사에 의해 측정된 3개의 하위요소로 내용적 요소, 음성적 요소, 체언적 요소를 포함한다.

4)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며, 어떻

게 타인을 지각하고, 그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가,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이다(Heider, 1958).

이 연구에서 대인관계는 정재현(2011)의 대인관계검사에 의해 측정된 3개의 하위요소로 의사소통 요소, 인간관계 요소, 집단활동 요소를 포함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진치료

1) 사진치료의 개념

예술치료는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활동이며, 현대의 심리치료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김진숙, 1993). 예술치료의 역할은 창작행위 자체가 치유성을 가지며, 치료관계에서 내담자의 저항심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예술치료의 하위개념에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영화치료, 사진치료 등이 있으며, 사진치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Fryrear & Krauss(1983)는 사진치료에 대해서 ‘사진의 이미지와 사진의 창작과정을 조직적으로 응용하여 내담자의 생각과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Weiser(2012)는 ‘사진은 우리 마음의 발자국이고, 우리 삶의 거울이며, 우리 영혼의 반영이고, 적막한 한 순간 우리 손안에 쥘 수 있는 응고된 기억이다. 사진은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록할 뿐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려는지 그 방향에 대해 가르쳐 준다.’라고 말하며, 치료적 도구로서의 사진을 정의하였다.

사진치료의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 후반, 사진은 임상병리학을 기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임상장면에서 간접적으로 사진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의사 Diamond는 여성들만 수감되어 있는 정신병원에 부임하여 치료과정에서 정신질환 환자의 사진을 찍어 그들에게 보여주어 자아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프랑스의 살페트리에르(Salpêtrière) 병원의 원장 Jean-Martin Charcot는 1875년부터 1900년까지 히스테리 환자를 사진에 담아냄으로써 환자의 심리적 과정의 세심한 부분 및 증상을 탐구하였다. 아일랜드의 자선사업가 Bernardo는 1870년에 고아원 소년들의 변화 과정을 촬영

하여 고아들의 고아원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 이후 1970년대는 필름의 대량생산으로 필름 가격이 저렴해지고, 사진기술이 발달하면서 카메라가 대중화된 시기로, 본격적으로 심리치료에 사진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1979년, 사진치료를 위한 국제회의가 미국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국제사진치료학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심리학회나 사회복지학회, 예술치료학회 등 다른 분야에서 사진치료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1988년에 국제사진치료학회의 활동이 중지되었다.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의 활성화로 사진이 다시 대중화되면서 국제사진치료학회가 2008년에 핀란드에서 다시 개최되었다(윤광빈, 2011).

2) 사진치료의 접근방법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Weiser(2012)의 사진치료기법, 정경열(2009)의 PIE(Photo In Education)를 바탕으로 한 사진치료의 심리적, 교육적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심리적 접근

Weiser(2012)의 사진치료기법은 투사적 과정(the projective process), 자화상을 가지고 작업하기(working with self-portraits), 타인이 찍은 내담자의 사진을 가지고 작업하기(working with photos of clients taken by other people), 내담자가 찍거나 수집한 사진을 가지고 작업하기(working with photos taken or collected by clients), 가족 앨범과 다른 자서전적 사진을 가지고 작업하기(working with family album and other autobiographical photos)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사적 과정

투사적 기법은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도록 사진을 사용하는 사진치료기법이다. 사진치료과정에서 내담자 또는 타인의 사진, 잡지, 엽서, 달력 등 모든 중

류의 사진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진에 대한 우리의 내적 심상과 개인적 구성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실재가 된다. 이러한 투사적 사진치료과정은 심리치료와 예술치료에서 사용되는 로르샤흐 검사, 주제통각검사, HTP그림 검사 등과 유사하다. 하지만 사진에 대한 투사적 반응의 평가는 해석이 아닌 치료자의 질문에 내담자가 답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투사적 기법을 사용하면 사람들은 같은 사진을 보면서 다른 의미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단 하나의 방식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든다. 때로는 한 장의 사진을 동시에 여러 내담자에게 보이는 집단치료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하나의 이미지를 각기 다르게 말하는 다른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개인적인 치료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해낼 수 있다(박소현, 2004).

② 자화상을 가지고 작업하기

자화상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다루는 모든 사진을 포함한다. 자신의 사진은 자신과 직면하게 되고, 부정과 맞서고 한계를 탐색하게 한다. 이러한 직면과 부정과 한계를 넘어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내담자는 자신의 사진을 볼 때 자신의 모습을 선택적으로 여과시키기 때문에 자화상 작업과 투사적 기법을 결합하여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치료과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화상 작업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고, 가능성을 실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 변화를 성취할 수 있다. 자존감, 자신감, 자기 인식 등은 대부분의 치료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화상 작업은 자신을 보다 명확하게 보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Weiser, 2012).

③ 타인이 찍은 내담자의 사진을 가지고 작업하기

타인이 찍은 내담자의 사진은 타인이 자신을 지각하는 다양한 방식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타인이 자신을 보는 시선을 탐색하게 되고, 내담자가 보는 자신과 타인이 보는 자신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소현(2004)은 타인이 찍은 내담자의 사진을 가지고 작업하는 사진치료의 효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사진을 찍은 사람과 내담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타자가 자신의 사진을 찍도록 내버려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회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룹치료를 통해 내담자들끼리 서로의 사진을 찍어오게 하거나, 내담자의 가족에게 내담자의 사진을 찍어오게 하여 가족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사진을 찍는 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교류와 타인의 시선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치료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④ 내담자가 찍거나 수집한 사진을 가지고 작업하기

내담자가 찍은 사진은 자기표현의 한 형태이다. 내담자가 찍었거나 간직하거나 수집한 사진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내담자가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선택한 순간을 살펴보면, 내담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사실적·정서적 정보, 지속적인 주제, 그리고 개인적 은유와 상징을 알 수 있게 된다(Weiser, 2012). 이 과정은 내담자가 찍거나 수집한 사진을 가져오게 한 후, 그 사진에 대해 말해보는 것으로 치료과정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감 없이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좋은 방법이다. 이때 내담자는 사진의 내용, 사진 찍을 때의 상황,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이유 등을 말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내담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⑤ 가족 앨범과 다른 자서전적 사진을 가지고 작업하기

가족 앨범을 사용하는 기법은 가족, 뿌리, 배경, 환경, 관계, 그리고 세대를 통해 전수되는 기대에 의해 형성된 내담자를 다루게 된다. 이러한 기법은 내담자가 태어난 이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역할에 대해 알 수 있다. 우리는 특정 장소, 사람 또는 개인적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앨범을 간직한다. 가족 앨범은 오래된 시간동안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언어가 아닌 사진을 통해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사실적·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사진치료 과정에서 가족의 역사나 상호작용 패턴을 아는 것이 내담자를 이해하고,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박소현, 2004).

(2) 교육적 접근

정경열(2009)은 Ewald(2001)의 사진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LTP(Literacy Through Photography)를 모태로 하여 상상력과 표현력을 키워주는 사진교육 PIE(Photo In Education)를 국내에서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PIE의 기초가 되었던 Ewald의 LTP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LTP는 1991년, 미국 듀크대학 다큐멘터리 연구소에서 사진교육자인 Ewald를 초청하여 만든 사진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진을 통해 시각 이미지를 언어로 표현해보는 새로운 소통의 교육방법이며,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시 초등학교 학생에게 사진과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LTP의 수업 방식은 쓰기, 찍기, 쓰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쓰기 수업에서는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피사체에 대하여 글쓰기와 이미지 리스트를 만든다. 사진 찍기 수업에서는 촬영 및 흑백 필름 현상, 인화 작업을 한다. 이후, 쓰기 수업에서는 작업 과정에서 느낀 점을 다시 글로 쓰고, 구성원이 함께 토론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Ewald, 2001).

LTP를 통해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진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생각을 친구들이나 교사 앞에 표현함으로써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둘째, 교사들이 사진을 통해 학생들의 삶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 사진 읽기 및 글쓰기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능력뿐 아니라 글쓰기와 사고력이 신장된다. 넷째, 사진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자신의 결과물을 타인에게 보여줌으로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나와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해줄 수 있으며 학교 교육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김문정, 양종훈, 정영근, 2010).

PIE는 미국의 LTP를 기초로 하여 조선일보 정경열 기자가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한 사진 교육 프로그램이다. 두 프로그램은 사진으로 어린이를 가르친다는 교육의 출발점은 같지만, 기본적으로 교육내용과 커리큘럼에 차이가 있

다. LTP가 아동의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PIE는 교육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정경열, 2009). PIE는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단계로 학생들에게 사진을 보여준 후에 사진에 대한 감상을 자유롭게 말해보며, '사진은 무엇인가'하는 사진의 의미를 파악한다. 다음 단계부터는 주제를 정하고, 촬영계획을 세우고, 사진을 찍고, 자신의 사진에 대한 글을 쓴다. 형상화된 사진을 이용한 자유로운 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은 감수성과 창의력은 물론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자의 사진과 글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전시회 형태로 진행되며, 자연스럽게 친구, 교사, 부모와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PIE를 통해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영상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알게 되며, 사진을 매개체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 둘째, 어려운 훈련이나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사진으로 쉽게 자신을 표현하며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셋째, 사진으로 구체화된 이미지는 구성원에게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글쓰기를 쉽게 해준다. 이는 사진으로 글쓰기와 사고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넷째, 사진을 단순히 찍고 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읽고 이해하며 문서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능력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정경열, 2009).

이와 같이 PIE는 자신의 생각, 욕구를 표현하는 사진 활동을 통해 창의력, 표현력, 사고력, 글쓰기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존재와 자아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사진치료와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사진은 말과 같은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기억해 내기 위해 많은 정보를 저장한다. 저장된 정보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 즉, 내적 의미를 재현해내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Weiser, 2012).

Weiser(2012)는 ‘사진은 친밀하고도 개인화된 은유를 담은 시각적·상징적 형태로 감정과 생각을 포착하고 표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사진은 하나의 언어로써 자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관계를 전달해준다. 사진은 우리가 수많은 장면에서 선택된 하나의 이미지로서 그 장면이 선택된 우리만의 인식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 인식은 우리가 속해있는 사회 제도, 문화, 환경, 상황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사진은 사실의 재현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대상과 이미지의 관계, 그리고 그 이미지의 해석이 제시될 수 있다. 한정식(2004)은 어느 시각 매체보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 지시적 기능이 강하게 작용되며, 표현된 모든 것들이 언어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사진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이는 ‘표현과 전달’이라고 하는 언어의 기본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사진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신문, 잡지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됨으로써 사실을 확인하고,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로서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적 과정을 말하는 인지는 무엇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은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는 사람이 대상을 언제·어디서·무엇을 보기로 결정하였는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방식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Weiser(2012)는 사진을 찍는 사람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만을 사진에 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사진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무의식을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바깥에 있는 외적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내적 자아와 통합된다. Berger(1991)는 ‘본다’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한 사물에 시선을 준다는 것은 대상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본다’의 의미는 이미지가 아니라 보는 이의 해석에 의해 선택된 시각이라고 말한다. 사진을 감상할 때에는 사진 속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것을 넘어 사진을 찍은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진치료는 미술치료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가지며, 이는 심리학자 Freud와 Jung의 이론을 토대로 하였다(박소현, 2004). Freud는 예술은 환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예술가는 그의 내면에 있는 환상세계를 예술작품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내담자가 창조해 낸 사진 이미지는 하나의 상징이며, 사진 창작활동에서 나타난 내담자의 상징을 해석하고, 심리적 문제를 도와주는 것이 사진치료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Jung은 언어보다 심상(이미지)이 인간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말보다는 심상을 통해 무의식의 정신세계를 의식으로 가져오기가 쉽다고 말한다. 따라서 내담자들이 찍은 사진은 무의식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사진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사진은 의식적으로 찍지만 사진 속 대상에 대한 선택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진은 무의식을 의식적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매체가 될 수 있다(박소현, 2004).

이와 같이 사진치료는 사진으로 자신의 내면화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상징적·비언어적 방식으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진을 매개체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1) 저소득층 아동의 개념

저소득층이란 일반적인 빈곤기준에 의해 생활보호의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계층이다. 빈곤의 기준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 절대적 빈곤은 가장 오래된 빈곤의 정의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은 사회의 평균이나 일정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 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계층에서 중·하위층에 해당되는 평균가구 소득의 하위 20% 또는 차상위 계층까지 빈곤으로 볼 경우, 평균 가구소득의 하위 50%에 포함될 때에 해당된다. 현대사회에서는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 개념이 주로 사용된다(윤혜미, 김혜래, 신영화, 2005).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노동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로서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능력자가 없는 기택이나 시설보호대상 가구이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가난한 자로서 자활

보호대상에 속하는 가구, 셋째, 잠재적 가난한 자로서 불의의 사고나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빈곤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한계대상 가구로 나뉘질 수 있다(노인철, 1995).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있는 저소득층은 현대에 와서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결핍이나 부족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궁핍이나 결여, 박탈과 불평등까지 다양한 의미로써 정의 내릴 수 있다(도미향, 남연희, 이무영, 변미희, 2008).

저소득층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하며(이순자, 나성식, 김현경, 이효숙, 2012), 이 아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아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발육부진과 같은 신체적 문제, 학업부진과 학교중퇴 등의 인지적 문제 그리고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이다. 또한 공격성,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반사회적 행동 등의 사회적 문제를 포함한다(허남순, 오정수, 홍순계, 김혜란, 박은미, 정익중, 2005). 둘째, 가정 및 학교에서 갖는 학업에 대한 낮은 기대와 지지 부족은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부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학교는 아동이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학교적응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위해 필수적이다. 저소득층 아동은 학업을 위한 학습공간 및 필요 물품 부족으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고, 학교 부적응을 겪을 수 있다. 셋째, 저소득층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산만하고, 문제행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김주현, 1995).

한국여성복지연구회(2005)의 부모양육에 관한 연구 결과는 저소득층 아동의 부모 훈육이 비일관적, 위협적, 강압적이며, 부모·자녀 간 애착이 약하고, 자녀에게 낮은 수준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소득층 아동의 부모 특성은 아동의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부모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나 관심의 부재 역시 저소득층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자기표현의 개념

Wolpe(1958)는 자기표현을 타인에게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Wolpe & Lazarus(1966)는 자기표현 행동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느낌의 표현이며 그것은 분노, 초조, 반대, 괴로움뿐만 아니라 긍정적 표현인 애정, 즐거움, 사랑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Fensterheim & Baer(2009)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행동,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행동,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생활에 접근하는 행동이 바로 자기표현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Alberti & Emmons(1976)는 자기표현을 행동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자신에게 가장 이롭게 행동하는 것으로 근심이나 두려움 없이 자신을 옹호하는 행동이며, 정직한 느낌을 편안하게 드러내는 행동이다. 그리고 타인이 권리를 부정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동등하게 이루기 위해 애쓰는 행동이다. 김성희(1982)는 자기표현이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권리, 욕구, 생각 및 느낌 등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상대방에 직접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이장호(1992)는 자기표현에 대해 불안 없이 자기의 의사 및 감정을 소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하며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 표현의 대상, 표현내용 등에 유연성과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진혜(2005)는 자기표현이란 자신의 생각과 느낌, 관심사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권리, 욕구, 의견, 느낌, 사고를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타인의 경험과 관심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내용에서 자기표현의 정의는 초기에는 개인적·일방적이었으나, 점차 타인의 권리와 감정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중순, 2003).

Adler(1982)는 효과적인 자기표현을 위해 필요한 자기표현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내용적 요소(문장 끝맺기, 핵심의 전개)이다. 이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를 위해서 일상대화에서 어떠한 주제를 간결하게 이야기하거나, 할 말을 먼저 검토해보는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둘째, 음성적 요소(목소리 크기, 말하는 속도)는 ‘무엇을 말해야 하나?’라는 문제보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초점을 둔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행동을 직접 보지 못해도 그들이 어떤 감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목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 셋째, 체언적 요소(눈맞춤, 얼굴표정, 자세)는 비언어적 행동을 의미한다. 자기표현적인 말이라도 머뭇거린다든지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면 그 말은 호소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각적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

자기표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표현훈련을 최초로 개발한 Wolpe(1958)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인 주장행동에 관심을 갖고 주장행동을 신장시키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발전시켰다. Rakos & Schroeder(1980)는 주장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장훈련 대상자의 특성과 비주장행동의 원인을 알아 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변창진, 김성희(1980)가 Rakos & Schroeder(1980)의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맞도록 재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주장훈련, 자기표현 훈련으로 불리고 있으며, 김호숙(2005), 이은경(2002), 임정희(2007), 최명심(2000)등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표현훈련 프로그램 실시하여 자기표현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3) 대인관계의 개념

Heider(1958)는 대인관계란 개인이 타인을 대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이며, 내적인 특성과 외적인 행동 간의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며, 어떻게 타인을 지각하고, 그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가,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의 대부분은 타인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도는 개인적 인간관계를 귀인 시키는데 핵심이 된

다. Fromm(1997)은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 대인관계를 설명하였다. 대인관계의 주된 동기는 불안의 감소 내지는 불안으로부터 도피함으로써 안전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공포는 고립과 추방이며, 타인과 결합하고 대인관계를 맺으려는 강렬한 욕구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Sullivan(1953)은 개인의 성격 자체를 대인관계로 파악하였다. 개인의 정신적 문제는 사람과 사람간의 일이 포함되거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는 개인의 생각과 행동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평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대인관계의 긴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설명하며, 인간이 지닌 불안의 근원이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대인관계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 기술은 글이나 말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며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인간관계 기술은 타인에 대한 정직한 태도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집단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집단 활동 기술은 집단활동 중에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의견 대립이 발생할 경우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집단을 통합하고, 건전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기술이다(정재현, 2011).

대인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현주, 권정혜(2002)는 대인관계적 접근의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김진옥(2010)은 초등학생에게 대인관계향상훈련을 실시하여 대상아동의 대인관계 갈등해결방식과 대인관계 만족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유영희(2010)는 초등학생에게 의사소통훈련을 실시하여 대상아동의 대인관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4) 저소득층 아동과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김성희(1982)는 자기표현행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소극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을 비자기표현 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자기표현행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와 권리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소극적 행동은 자신의 마음과 달리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욕구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기 부정적 행동이며, 공격적 행동은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워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다.

저소득층 아동은 경제적 어려움,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부족,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 학교에서의 성적부진 및 부적응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은 불안, 분노, 우울과 같은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에서도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안주희, 2013),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현실에 맞게 해결하기보다는 비언어적이고 미숙한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결국, 저소득층 아동은 친구, 부모, 교사와의 관계에서 악순환적 상호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대인관계가 악화되거나 스스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변보기, 강석기, 2002). 이러한 저소득층 아동의 특성은 아동기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사회 부적응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욕구를 타인에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표현능력을 키우고, 타인을 이해·공감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응에 매우 중요하다.

저소득층 아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랑규, 강우선(2006)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능검사, 적응행동 검사, 우울 척도 검사, 충동성 검사, 부모상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지능검사의 하위요소인 언어성 지능, 사회적 이해 능력 및 사회적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력, 주의집중능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위축, 충동성, 주의산만 등의 문제를 보이는 5명의 아동에 대해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 연구의 부모상담 결과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양육방법의 정보 부재로 인해 주로 체벌을 사용하는 훈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화경, 배소영, 윤효진(2013)은 저소득층 아동이 중상위층 아동보다 낱말해독, 읽기 유창성 검사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시기에 맞는 언어능력과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자신을 표현해보는 기회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사진치료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사진치료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홍미선(2010)은 미술의 투사적 기법을 사진에 적용한 내담자 가족의 사례연구를 통해 사진이 심리치료 영역에서 유용한 방법과 매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윤광빈(2011)은 가족사진 촬영이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촬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언어의 표현은 개인의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소영(2009)은 치매노인에게 사진치료를 실시하여 기억력 회상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증명하였다. 이진화(2011)는 PIE(Photo In Education)를 통해 초등학생이 주체가 되어 수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선이(2005)는 연극치료를 통해 비사교적인 자기표현 집단은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행동이 증가하였고, 소극적인 자기표현 집단은 자발성이 향상되었으며, 공격적인 자기표현 집단은 공격적인 언어표현이 감소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안주희(2013)는 연극치료를 통해 자기표현의 하위요소인 내용적·음성적·체언적 요소가 통계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연극치료 회기가 진행될수록 저소득층 아동은 자기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배려심과 참을성을 가지고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임선희, 원상화(2011)는 인지행동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적·행동적·인지적 자기표현이 통계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김현수(2013)의 연구에서는 회기가 진행될수록 저소득층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권주희(2010)는 집단음악치료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이 구성원과 함께 악기 연주를 함으로써 대인관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사진치료는 사진의 특성인 현실의 재현을 통해 사실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을 탐색하고,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인 심리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예술치료를 통해 비언어적·무의식적 표현활동을 경험하면서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사진치료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사진을 매개체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대상아동에게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A-B-A설계를 사용하여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을 관찰하여 사진치료 단계에 따른 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사진치료를 시작하기 전, 연구자는 대상아동에게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검사를 실시하였고, 기초선 I 기간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주2회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을 관찰하였다. 사진치료가 진행되는 처치기간 동안 연구자는 대상아동을 관찰하여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를 분석하였다. 사진치료는 2014년 1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주2회, 총 10회기로 회기별 60분간 진행되었으며, 사진치료가 종결된 후, 연구자는 대상아동에게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2회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을 관찰하여 기초선 II 기간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사진치료 회기별 비디오 녹화내용과 관찰내용을 토대로 사진치료 단계에 따른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 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

연구자는 제주시 소재의 B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15명 중에서 B지역아동센터 교사에 의해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지각되는 아동 5명을 선정하였다. 이 아동은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검사 결과에서 평균(자기표현 65점·대인관계 45점)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가 부족한 아동 5명 중에서 사진치료를 참여를 희망하며, 연구 참여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아동 4명으로 4학년 1명, 5학년 1명, 6

학년 2명으로 구성된 단일집단이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대상의 특성

아동	성별	나이	가족관계	외관상 특징	행동관찰
A	남	13	부, 모, 남동생	또래에 비해 키가 작은 편이다. 어두운색 옷을 주로 입는다.	말의 속도가 빠르다. 질문을 하면 '몰라요.'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평소에 타인의 눈치를 자주 살핀다.
B	여	13	부, 모, 언니, 남동생	안경 착용. 앞머리가 길어서 눈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	말수가 적으며 감정변화가 심하다. 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소리로 말한다. 얼굴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다.
C	여	12	부, 모	안경 착용. 단발머리이며, 항상 단정한 모습이다.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인다. 필기도구 정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D	남	11	부, 모, 여동생	머리는 짙은 갈색으로 염색. 통통한 체격이며, 주로 트레이닝복을 입는다.	눈맞춤이 적절하지 않으며, 산만하고 쉽게 지루해한다.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자기주장적인 행동을 보인다. 부정적, 공격적인 언어를 주로 사용한다.

3. 측정 도구

1) 자기표현검사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Rakos & Schroeder(1980)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표현 척도를 재구성한 최명심(2000)의 자기표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개 문항이며, 문항은 말한 내용에 자기표현 요소가 내포되었는지를 평정하는 내용적 요소 9문항, 음성에 자기표현 요소가 나타나는지를 평정하는 음성적 요소 5문항, 표정이나 손발의 움직임 등과 같이 비언어적인 자기표현 요소

가 반영되어 있는가를 평정하는 체언적 요소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검사에 대한 측정방법은 5점 평정척도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된다. 전체점수는 20 ~ 100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표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표현검사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자기표현검사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소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내용적	9	1, 2, 3, 4, 5, 6, 7, 8, 9	.94
음성적	5	10, 11, 12, 13, 14	.80
체언적	6	15, 16, 17, 18, 19, 20	.79
전체	20		.96

2) 대인관계검사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권영웅(2004)이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관계 척도를 재구성한 정재현(2011)의 대인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2문항이며, 문항은 타인의 말을 경청, 감정표현 기술을 평정하는 의사소통 요소 2문항,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와 타인과 화합하는 기술을 평정하는 인간관계 요소 7문항, 집단 분위기 조성 및 구성원의 요구를 고려·수용하는 기술을 평정하는 집단활동 요소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검사에 대한 측정방법은 5점 평정척도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된다. 전체점수는 12 ~ 60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인관계검사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대인관계검사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소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의사소통	2	1, 2	.88
인간관계	7	3, 4, 5, 6, 7, 8, 9	.96
집단활동	3	10, 11, 12	.85
전체	12		.97

3) 행동관찰기록표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A-B-A설계를 사용하여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를 분석하였다. 행동관찰기록표는 대상아동에게 사전에 실시한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검사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1점 이하)를 받은 문항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자기표현척도 5문항, 대인관계척도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행동관찰기록표의 측정방법은 5점 평정척도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된다. 자기표현행동과 대인관계행동 각각의 점수는 5 ~ 25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행동관찰기록표 분석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동일한 환경조건을 설정하였다. 환경조건은 관찰시간 20분, 관찰장소는 B지역아동센터 학습실, 관찰장면은 대상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활동 및 모둠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행동관찰기록표는 대상아동이 놀이도구를 사용하여 결과물을 완성하는 놀이활동(기초선 I · 기초선 II기간)과 사진신문 만들기를 수행하는 모둠활동(처치기간)을 관찰하여 분석되었다. 행동관찰기록표 문항 구성은 <표 III-4>와 같다.

<표 III-4> 행동관찰기록표 문항 구성

행 동	문 항
	10. 상대방이 알아듣게 큰소리로 말한다.
	14. ‘예-’, ‘음-’ 등 말이 끊어지지 않는다.
	15. 주저하지 않고 바로 말한다.
	17. 말할 때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한다.
자기표현	19. 손, 발을 움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한다.
	1. 다른 사람에게 나의 느낌을 잘 표현한다.
	2.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대인관계	4.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동한다.
	7. 주어진 일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10.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고려한다.

4) 아동별 행동 변화 내용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사진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대상아동이 수행한 작업 결과물과 각 아동의 주요 반응,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모습을 관찰하여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 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4. 처치 도구 : 사진치료 프로그램

사진치료 프로그램은 임선희, 원상화(2011)의 연구와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Weiser(2012)의 사진치료기법, 정경열(2009)의 PIE(Photo In Education)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한국사진학회에 소속된 사진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신을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1~2회기), 중기(3~8회기), 종결기(9~10회기)단계로 총 10회기로 구성되었다. 초기 단계에는 자기소개를 통해 연구자와 구성원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신을 탐색할 수 있다. 중기 단계에는 촬영한 사진을 통해 자기표현력을 키우고, 사진치료 투사기법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종결기 단계에는 긍정적 자아를 강화하며 희망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구성원과 이야기하며 마무리한다. 이 프로그램의 구성은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사진치료 프로그램 구성

단계	회기	주제	활동	목표 및 기대효과
초기	1	만나서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자기소개 별칭정하기, 규칙정하기 모듬활동-별칭꾸미기	오리엔테이션 친밀감 형성
	2	사진으로 연상하기	사진 마인드맵 작업 종이구멍(프레임) 놀이 카메라 작동법 안내 모듬활동-사진신문만들기	'나'의 내면 표현하기 자기탐색 사진작업에 흥미갖기

중기	3	표정으로 말해요	얼굴 표정 사진 선택하기 글작성, 사진감상 및 발표 모듬활동-사진신문만들기	감정표현하기 신체활동을 통한 자기 표현 및 타인이해	
	4	사진일기쓰기	사진 선택하고 일기쓰기 글작성, 사진감상 및 발표 모듬활동-사진신문만들기	나의 생활 탐색하기 자기표현 및 타인이해	
	5	좋아요! 싫어요!	긍정적·부정적 사진 선택 하기 글작성, 사진감상 및 발표 모듬활동-사진신문만들기	자기의견 주장하기 자기표현 및 타인이해	
	6	나와 닮았어요	나와 닮은 사진 선택하기 글작성, 사진감상 및 발표 모듬활동-사진신문만들기	‘나’ 전달 하기 자기표현 및 타인이해	
	7	소중한 사람	가족사진 선택하기 글작성, 사진감상 및 발표 모듬활동-사진신문만들기	나의 가족 탐색하기 자기표현 및 타인이해	
	8	나와너, 너와나	내가 찍은 나, 타인이 찍은 나 사진 선택하기 글작성, 사진감상 및 발표 모듬활동-사진신문만들기	대인관계 속 자기모습 이해 자기표현 및 타인이해	
	종결기	9	나의 꿈	장래희망 사진 선택하기 글작성, 사진감상 및 발표 모듬활동-사진신문만들기	자신의 욕구 탐색하기 긍정적 자아 형성하기 자기표현 및 타인이해
		10	사진엽서 만들기	사진엽서 만들기 소감문 작성 및 발표 모듬활동-사진신문만들기	긍정적 자아 강화하기 성취감

이 프로그램의 회기 절차는 과제수행, 도입, 전개, 마무리 단계로 구성되었다. 과제수행 단계에는 회기 주제에 맞는 사진촬영을 통해 자신의 주변 환경

을 탐색해보며 다양한 사진을 찍어볼 수 있다. 도입 단계에는 촬영한 사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직면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지할 수 있다. 전개 단계에는 자신이 선택한 사진을 주제로 활동지를 작성하고, 사진감상 및 발표 시간을 갖는다. 대상아동은 사진과 관련된 글을 작성하고, 발표해봄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마무리 단계에는 모둠활동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과 사진으로 신문을 제작해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수용·요청·거절·타협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과제안내를 통해 대상아동에게 다음 회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이 프로그램의 회기 절차는 <표 III-6>과 같다.

<표 III-6> 사진치료 프로그램 회기 절차

단 계	시 간(분)	내 용
과제수행	자유활동	회기 주제별 사진 촬영
도입	10	인사나누기, 과제 수행 사진 선택
전개	30	활동지 작성, 사진감상 및 발표
마무리	20	모둠활동, 다음 회기 공지 및 과제 안내

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검사는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둘째,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는 기초선 I·처치·기초선 II 기간의 점수를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셋째,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 변화 내용은 참여 관찰과 비디오 녹화 내용을 토대로 사진치료 단계에 따른 대상아동의 행동 변화를 나타내었다.

IV. 연구 결과

1. 사진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1) 자기표현검사의 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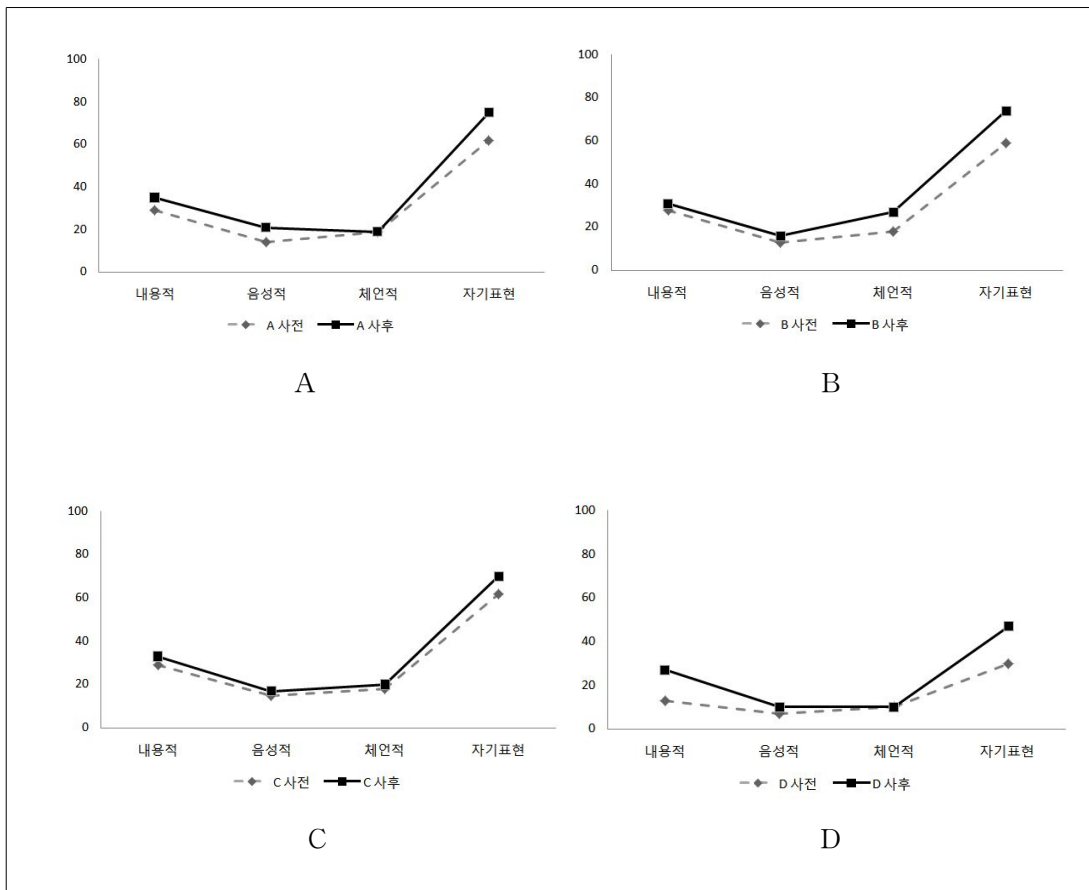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사진치료가 대상아동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총 20문항의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된 자기표현검사를 대상아동에게 실시하였다. 자기표현 사전·사후 검사결과는 <표 IV-1>과 같고,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IV-1]과 같다.

<표 IV-1> 자기표현 사전·사후검사 결과

아동	구분	하위요소			자기표현
		내용적	음성적	체언적	
A	사전	29	14	19	62
	사후	35	21	19	75
	변화 (사후-사전)	6	7	0	13
B	사전	28	13	18	59
	사후	31	16	27	74
	변화 (사후-사전)	3	3	9	15
C	사전	29	15	18	62
	사후	33	17	20	70
	변화 (사후-사전)	4	2	2	8
D	사전	13	7	10	30
	사후	27	10	10	47
	변화 (사후-사전)	14	3	0	17

<표 IV-1>에서 보면, A아동의 점수는 내용적 요소 6점, 음성적 요소 7점이 높아졌으며, 체언적 요소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B아동의 점수는 내용적 요소 3점, 음성적 요소 3점, 체언적 요소 9점이 높아졌다. C아동의 점수는 내용적 요소 4점, 음성적 요소 2점, 체언적 요소 2점이 높아졌다. D아동의 점수는 내용적 요소 14점, 음성적 요소 3점이 높아졌으며, 체언적 요소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표현 전체점수는 A아동 13점, B아동 15점, C아동 8점, D아동 17점이 높아졌다.

이상의 결과는 대상아동의 특성에 따라 자기표현 하위요소 점수와 전체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진치료가 대상아동의 자기표현검사 점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V-1] 자기표현 사전·사후검사 결과

2) 자기표현 행동관찰기록표의 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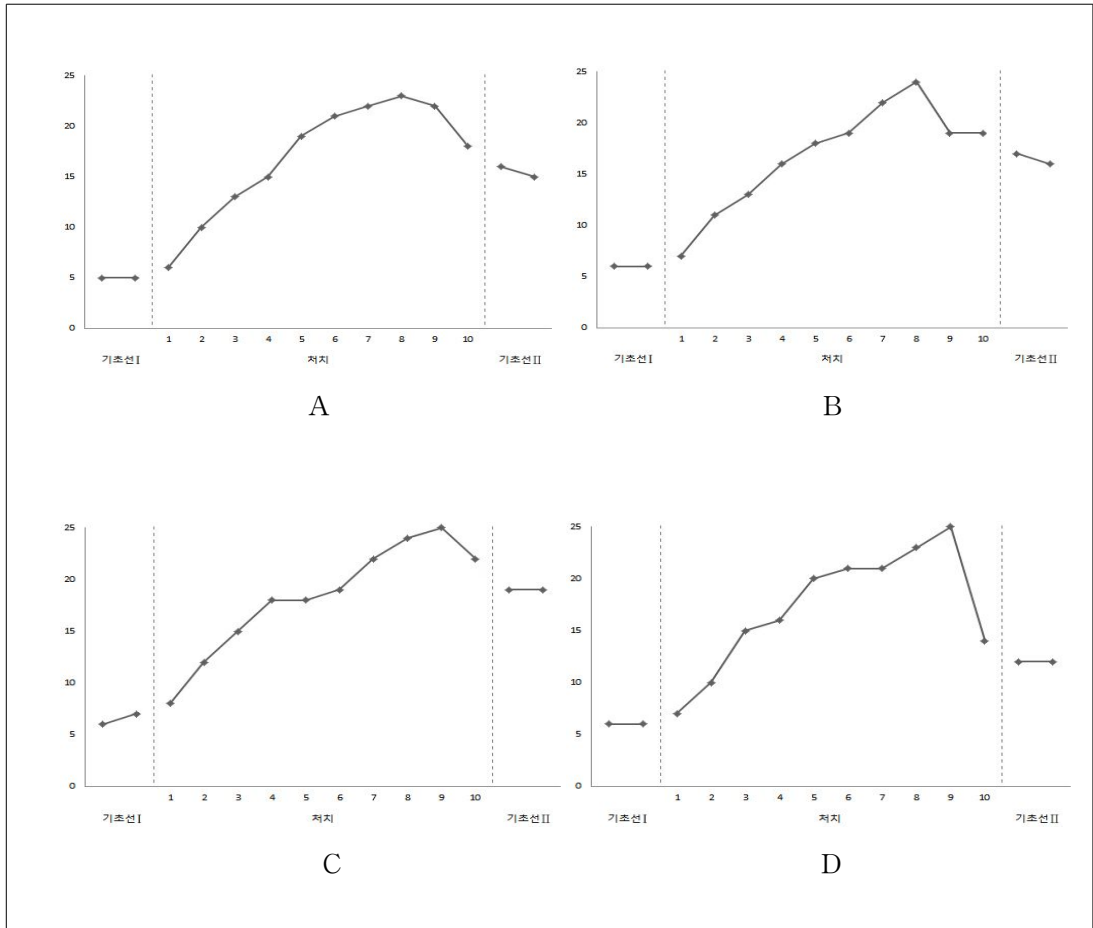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사진치료가 대상아동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총 5문항의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된 자기표현 행동관찰기록표를 작성하였다. 자기표현 행동관찰기록표 결과는 <표 IV-2>와 같고,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IV-2]와 같다.

<표 IV-2> 자기표현 행동관찰기록표 결과

관찰기간 아동	기초선		처치										기초선	
	I		1	2	3	4	5	6	7	8	9	10	II	
A	5	5	6	10	13	15	19	21	22	23	22	18	16	15
B	6	6	7	11	13	16	18	19	22	24	19	19	17	16
C	6	7	8	12	15	18	18	19	22	24	25	22	19	19
D	6	6	7	10	15	16	20	21	21	23	25	14	12	12

<표 IV-2>에서 보면, A아동의 점수는 기초선 I 기간 5점에서 처치기간 8회기에 23점으로 높아졌으며, 기초선 II 기간에 15점으로 낮아졌다. B아동의 점수는 기초선 I 기간 6점에서 처치기간 8회기에 24점으로 높아졌으며, 기초선 II 기간에 16점으로 낮아졌다. C아동의 점수는 기초선 I 기간 6점에서 처치기간 9회기에 25점으로 높아졌으며, 기초선 II 기간에 19점으로 낮아졌다. D아동의 점수는 기초선 I 기간 6점에서 처치기간 9회기에 25점으로 높아졌으며, 기초선 II 기간에 12점으로 낮아졌다.

이상의 결과는 사진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행동관찰기록표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진치료가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행동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V-2] 자기표현 행동관찰기록표 결과

2. 사진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1) 대인관계검사의 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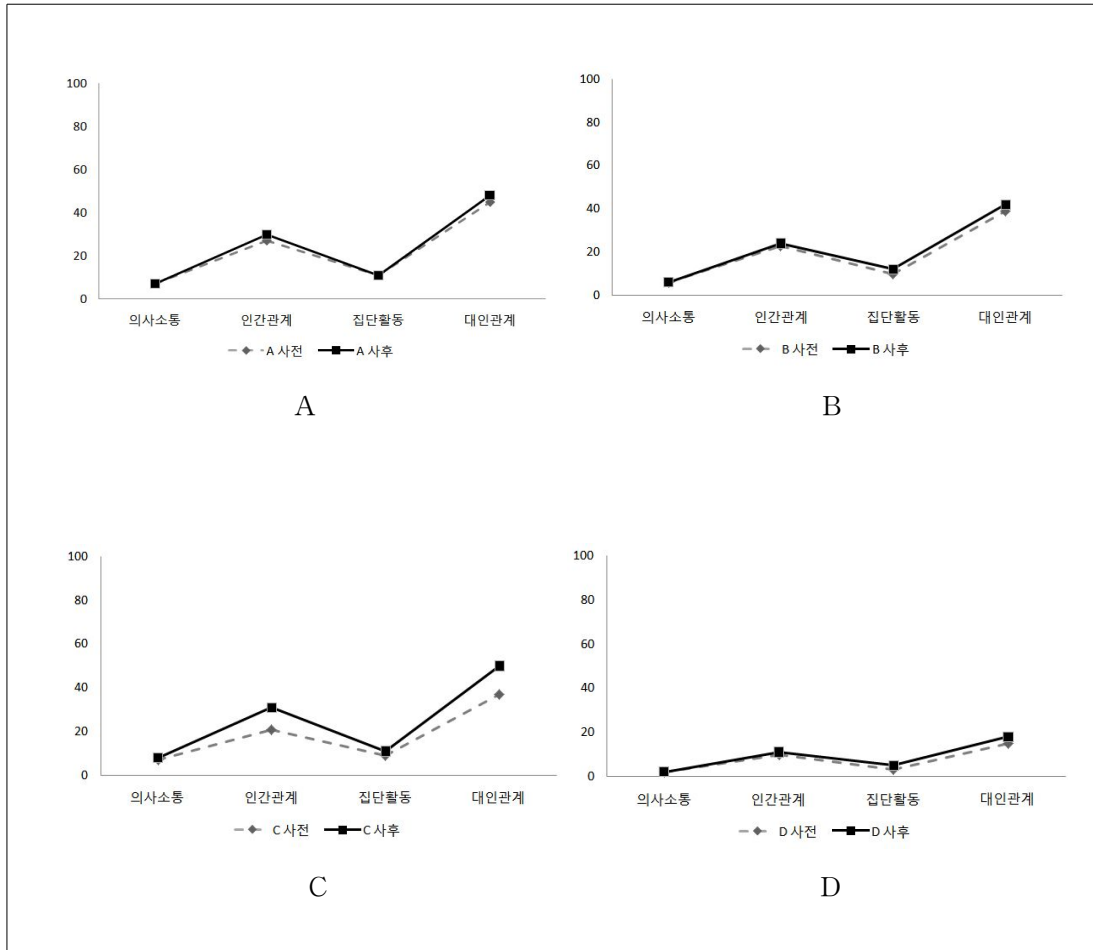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사진치료가 대상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총 12문항의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된 대인관계검사를 대상아동에게 실시하였다. 대인관계 사전·사후검사 결과는 <표 IV-3>과 같고,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IV-3]과 같다.

<표 IV-3> 대인관계 사전·사후검사 결과

아동	구분	하위요소			대인관계
		의사소통	인간관계	집단활동	
A	사전	7	27	11	45
	사후	7	30	11	48
	변화 (사후-사전)	0	3	0	3
B	사전	6	23	10	39
	사후	6	24	12	42
	변화 (사후-사전)	0	1	2	3
C	사전	7	21	9	37
	사후	8	31	11	50
	변화 (사후-사전)	1	10	2	13
D	사전	2	10	3	15
	사후	2	11	5	18
	변화 (사후-사전)	0	1	2	3

<표 IV-3>에서 보면, A아동의 점수는 인간관계 요소 3점이 높아졌으며, 의사소통 요소와 집단활동 요소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B아동의 점수는 인간관계 요소 1점, 집단활동 요소 2점이 높아졌으며, 의사소통 요소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아동의 점수는 의사소통 요소 1점, 인간관계 요소 10점, 집단활동 요소 2점이 높아졌다. D아동의 점수는 인간관계 요소 1점, 집단활동 요소 2점이 높아졌으며, 의사소통 요소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인관계 전체점수는 A아동 3점, B아동 3점, C아동 13점, D아동 3점이 높아졌다.

이상의 결과는 대상아동의 특성에 따라 대인관계 하위요소 점수와 전체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진치료가 대상아동의 대인관계검사 점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V-3] 대인관계 사전·사후검사 결과

2)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의 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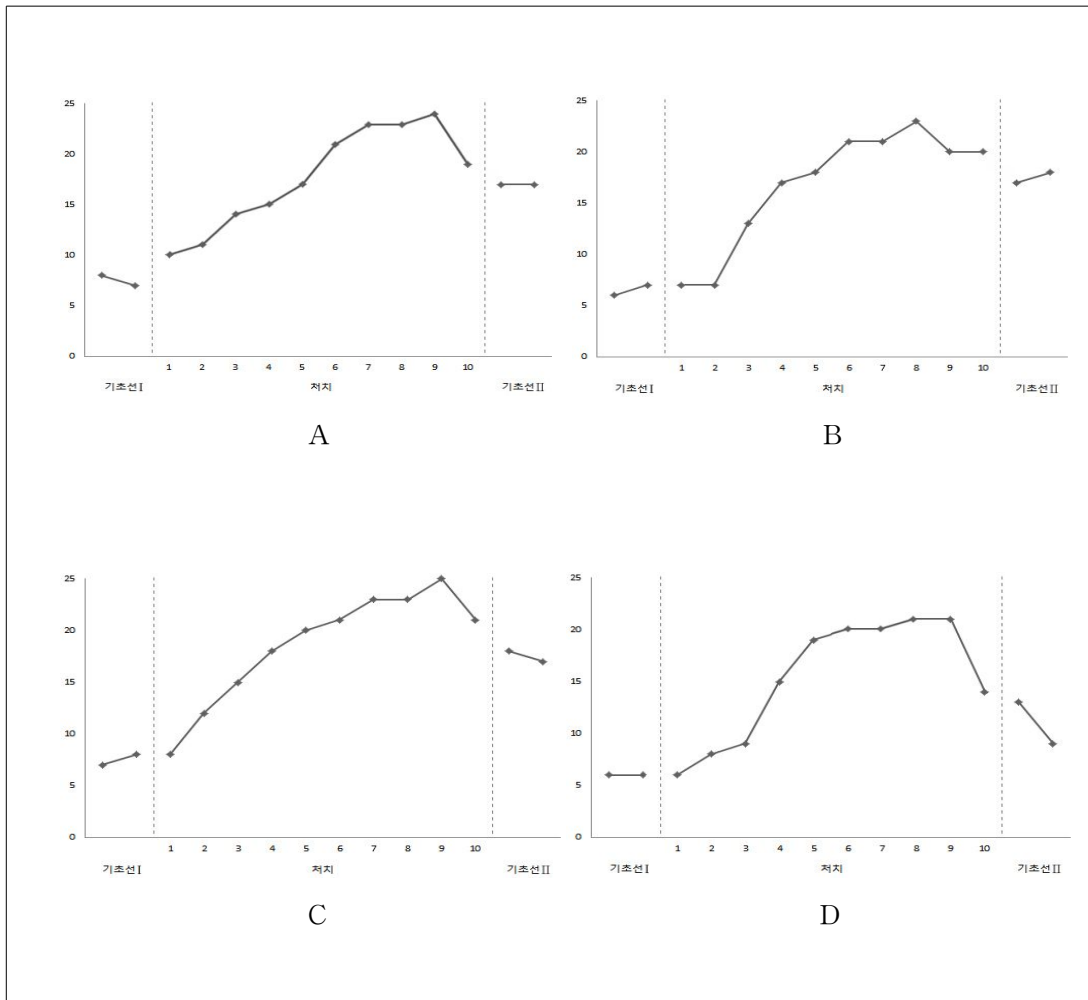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사진치료가 대상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총 5문항의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된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를 작성하였다.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 결과는 <표 IV-4>와 같고,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IV-4]와 같다.

<표 IV-4>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 결과

아동	관찰기간		처치											
	기초선 I	기초선 II	1	2	3	4	5	6	7	8	9	10	기초선 II	
A	8	7	10	11	14	15	17	21	23	23	24	19	17	17
B	6	7	7	7	13	17	18	21	21	23	20	20	17	18
C	7	8	8	12	15	18	20	21	23	23	25	21	18	17
D	6	6	6	8	9	15	19	20	20	21	21	14	13	9

<표 IV-4>에서 보면, A아동의 점수는 기초선 I 기간 7점에서 처치기간 9회기에 24점으로 높아졌으며, 기초선 II 기간에 17점으로 낮아졌다. B아동의 점수는 기초선 I 기간 6점에서 처치기간 8회기에 23점으로 높아졌으며, 기초선 II 기간에 17점으로 낮아졌다. C아동의 점수는 기초선 I 기간 7점에서 처치기간 9회기에 25점으로 높아졌으며, 기초선 II 기간에 17점으로 낮아졌다. D아동의 점수는 기초선 I 기간 6점에서 처치기간 8회기에 21점으로 높아졌으며, 기초선 II 기간에 9점으로 낮아졌다.

이상의 결과는 사진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아동의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진치료가 대상아동의 대인관계 행동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V-4]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 결과

3. 사진치료 단계별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 변화

연구자는 사진치료 단계에 따른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을 분석하였다. 사진치료 단계별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 변화 결과는 <표 IV-5>와 같고, 사진치료 회기별 활동내용은 <부록 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IV-5> 사진치료 단계별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 변화

대상	단계	내 용
A	초기 (1-2회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며 다른 아동들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말을 할 때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고 끝을 흐리는 경우가 잦았다. 질문을 하면 ‘몰라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았다.
	중기 (3-8회기)	발표를 할 때 민망해하며 말의 속도가 평상시에 비해 빨라졌다. 회기가 지날수록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며 말하는 속도가 적당해졌고, 발표를 할 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종결기 (9-10회기)	B아동이 발표를 할 때, 산만하게 행동하는 D아동에게 조용하게 주의를 주며 구성원 모두가 B아동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 회기 때 소감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재미있었고,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B	초기 (1-2회기)	말수가 적으며, 다른 아동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아동이 시끄럽게 하면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못마땅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중기 (3-8회기)	자신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기 때문에 사진작업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진지한 모습을 보였고, 다른 아동이 발표를 할 때 머뭇거리면 먼저 말을 건네며 도와주기도 하였다.
	종결기 (9-10회기)	9회기 때 친구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응원해주자 감동을 받고 눈가가 촉촉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회기 때 소감으로 친구들과 더 친근해진 기분이 들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C	초기 (1-2회기)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계속 움직였다. 다른 아동들이 산만하고, 시끄러우면 예민하게 반응했다. 다른 아동들이 동의할 때까지 자신의 의견을 계속 내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중기 (3-8회기)	사진신문의 제목을 정할 때 초기에는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였지만, 회기가 지날수록 다른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종결기 (9-10회기)	모든 회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말을 할 때 주저함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회기 때 소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을 잘 말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D	초기 (1-2회기)	발표를 할 때 민망한 듯 허공에 시선을 두고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기 때 주어진 내용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아동들이 시작한 이후에 마지막에 흉내 내는 모습을 보였다.
	중기 (3-8회기)	회기가 지날수록 집중도가 높아졌고, 주어진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활동지를 작성할 때에도 글씨를 대충 쓰지 않고 정성스럽게 작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종결기 (9-10회기)	자신이 이해 못하는 내용이 있으면 다른 아동에게 질문을 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발표를 할 때 막힘이 없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에는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회기에는 흥분한 모습과 초기의 산만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마지막 회기 때 소감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즐거웠다고 하였다.

<표 IV-5>에서 보면, A아동은 말의 속도, 문장 끝맺기 등의 자기표현행동이 향상되었으며, 구성원간의 집단활동에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였다. B아동은 자신을 탐색하고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른 아동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며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보였다. C아동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으며, 자기주장적인 행동이 강했으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다른 아동의 의견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D아동은 다소 산만했지만 점점 사진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회기마다 주어진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사진치료 단계에 따라 대상아동이 긍정적인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을 보임으로써, 사진치료는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V.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사진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진치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사진치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셋째, 사진치료 단계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연구문제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아동은 사진치료를 통해 자기표현검사와 자기표현 행동관찰기록표 점수가 높아짐으로써 사진치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사전·사후검사 하위요소 점수를 비교해보면, A아동의 점수는 내용적 요소와 음성적 요소에서 높아졌다. 이는 A아동의 특성인 말의 속도가 빠른 점과 ‘몰라요.’와 같은 애매모호한 말을 주로 사용하는 점이 개선되면서 자기표현 점수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B아동의 점수는 체언적 요소에서 크게 높아졌다. 이는 소극적이고, 얼굴 표정의 변화가 없었던 B아동의 특성이 사진치료가 진행되면서 긴장감이 줄어들고, 얼굴 표정 또한 편안해지는 모습으로 변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C아동의 점수는 다른 아동의 점수에 비해 낮은 점수로 향상되었다. C아동의 특성인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주저하지 않는 점은 다른 아동에 비해 자기표현 행동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C아동의 자기표현 점수가 다른 아동의 점수에 비해 낮은 점수로 향상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D아동의 점수는 내용적 요소에서 크게 높아졌다. 이는 산만하고 자기주장적인 행동을 보였던 D아동의 특성이 다른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는 모습으로 변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행동관찰기록표 점수는 기초선 I·II기간보다 사진치료가 진행된 처치기간에 높게 나타났으며, 사진치료 중기와 종결기 단계인 8~9회기에 가장 높았다. 하지만, 마지막 회기인 10회기에는 점수가 낮아졌다. 이는 9회기가 종결된 후에 과제수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대상아동에게 10회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성원들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소 산만한 행동이 나타난 결과이다.

대상아동에게 실시한 자기표현검사 점수는 연구자가 작성한 자기표현 행동관찰기록표 점수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구자가 자기표현 행동관찰기록표 점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정한 환경조건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매회기마다 동일한 관찰시간, 관찰장소, 관찰장면에서 대상아동의 자기표현행동을 중심으로 행동관찰기록표 점수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설정은 자기표현검사 점수와 자기표현 행동관찰기록표 점수 결과에 차이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연극치료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안주희(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정경열(2009)의 PIE(Photo In Education)를 바탕으로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발표하는 절차로 사진치료를 진행하면서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대상아동이 사진을 매개체로 자신을 표현하고, 사진으로 표현된 이미지로 구성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전달해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자기표현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대상아동은 사진치료를 통해 대인관계검사와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 점수가 높아짐으로써 사진치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아동의 대인관계 사전·사후검사 하위요소 점수를 비교해보면, A아동의 점수는 인간관계 요소에서 높아졌다. 이는 A아동의 특성인 질문을 하면 '몰라요.'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점이 사진치료를 통해 타인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B아동의 점수는 인간관계 요소와 집단

활동 요소에서 높아졌다. 이는 말수가 적고 구성원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던 B 아동이 구성원이 자신에게 보여준 관심을 통해서 타인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C아동의 점수는 인간관계 요소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아동의 점수에 비해 높은 점수로 향상되었다. C아동은 사진치료가 진행될수록 자기주장적인 모습에서 다른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모습으로 변화하였으며, 매회기마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C아동의 대인관계 점수가 다른 아동의 점수에 비해 높게 향상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D아동의 점수는 인간관계 요소와 집단활동 요소에서 높아졌다. 이는 산만한 행동으로 회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타인을 이해·공감하지 못했던 D아동의 특성이 사진에 흥미를 느끼고, 다른 아동이 수행한 작업 결과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상아동의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 점수는 기초선 I·II기간보다 사진치료가 진행된 처치기간에 높게 나타났으며, 사진치료 중기와 종결기 단계인 8~9회기에 가장 높았다. 하지만, 마지막 회기인 10회기에는 점수가 낮아졌다. 이는 9회기가 종결된 후에 과제수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대상아동에게 10회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성원들의 긴장이 풀리면서 산만한 행동이 나타난 결과이다. 이 결과는 자기표현 행동관찰기록표 점수 결과와 일치한다.

대상아동에게 실시한 대인관계검사 점수는 연구자가 작성한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 점수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구자가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 점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정한 환경 조건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매회기마다 동일한 관찰시간, 관찰장소, 관찰장면에서 대상아동의 대인관계행동을 중심으로 행동관찰기록표 점수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설정은 대인관계검사 점수와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 점수 결과에 차이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권주희(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Weiser(2012)의 사진을 찍는 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교류와 타인의 시선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대상

아동이 사진을 매개체로 구성원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모둠활동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협하고, 수용해 봄으로써 대인관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대상아동은 사진치료 단계에 따라 긍정적인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을 보임으로써, 사진치료는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아동은 사진치료에 대한 소감으로 자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진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C아동은 4회기에서 ‘그림은 못 그릴 수도 있는데 사진은 찍으면 잘 나온다.’고 말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상아동이 사진에 대해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아동은 매 회기마다 구성원의 사진을 보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구성원이 발표를 할 때 부끄러워하거나 말을 꺼내지 못하면 다른 아동이 먼저 말을 건네며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아동이 사진치료 과정에서 사진을 매개체로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타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사진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B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저소득층 아동 4명이며, 연구자는 대상아동에게 총 10회기의 사진치료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검사, 그리고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이다. 이는 최명심(2000)의 자기표현척도와 정재현(2011)의 대인관계척도로 구성되었다. 처치도구로 사용된 사진치료 프로그램은 임선희, 원상화(2011)의 연구와 Weiser(2012)의 사진치료기법, 정경열(2009)의 PIE(Photo In Education)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

이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대상아동에게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검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둘째, 연구자는 A-B-A설계에 따라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표를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기초선 I·처치·기초선 II기간의 점수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셋째, 연구자는 사진치료 진행과정을 촬영한 비디오와 관찰기록을 토대로 사진치료 단계에 따른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 변화를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아동은 사진치료를 통해 자기표현검사와 자기표현 행동관찰기록표 점수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사진치료를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상아동은 사진치료를 통해 대인관계검사와 대인관계 행동관찰기록

표 점수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사진치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상아동은 사진치료 단계에 따라 긍정적인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을 보임으로써, 사진치료는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예술 치료를 실시한 선행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사진치료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폰 카메라의 대중화로 사람들에게 친숙한 사진 매체를 사용하여 현실을 재현함으로써 사실적·객관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제언

이 연구의 결론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제주시에 소재한 B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 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이나 다양한 소외계층 아동 등 대상과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진치료를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대상에 맞는 차별화 된 사진치료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대상아동에게 주 2회씩 총 10회기의 사진치료를 실시하였다. 이는 단기간에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가 향상되는 변화를 측정하였기에 장기적인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장기간동안 사진치료를 실시하여 연구의 지속적인 효과성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사진치료는 제한적인 시간과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사진 촬영이 과제수행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행동관찰이 이루어진 환경적 범위가 실내로 제한되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

는 카메라의 휴대성과 사진에 대한 대상아동의 즉각적인 반응이 관찰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적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사진촬영이 사진치료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 연구의 결과는 양적 내용을 중심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사진치료 과정에서 대상아동이 수행한 결과물을 비교·분석한 질적 내용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미술치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HTP그림검사와 같이, 연구대상이 수행한 결과물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심리치료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적절성 부적응에 대한 인지 행동적 설명 모형. **학생연구**, 30, 38-63.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권영웅 (2004). 리더십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리더십 기술 인식과 자기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권주희 (2010).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김문정, 양중훈, 정영근 (2010). 어린이 사진교육 프로그램 LTP의 이해와 분석. **현대사진영상학회지**, 13, 9-27.
- 김선이 (2005). 연극치료가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김성희 (1982).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장훈련의 효과. **학생지도연구**, 15(2), 1-30.
- 김주현 (1995). 도시지역 '자기보호아동'(Latchkey child)을 위한 방과후 탁아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진숙 (1993). **예술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진옥 (2010). 대인관계향상 훈련이 초등학생의 갈등해결방식과 대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 김현수 (2013).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력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김호숙 (2005). 자기표현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김화경, 배소영, 윤효진 (2013). 저소득층 아동의 낱말해독 및 읽기 유창성. **한국언어치료학회**, 22(1), 55-68.
- 노연숙, 현혜연, 하동환 (2007).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한 유아 사진 교육이 이미지 리터러시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진학회**, 16, 64-72.

- 노인철 (1995). 저소득층 실태변화와 정책과제: 자활자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책보고서.
- 도미향, 남연희, 이무영, 변미희 (2008). 아동복지론. 서울: 공동체.
- 박랑규, 강우선 (2006).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 행동 특성.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1), 1-23.
- 박소현 (2004). 사진치료의 이론과 실제: 가족사진을 통한 사진치료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정란, 서홍란 (2001). 아동복지론. 경기: 양서원.
- 변보기, 강석기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적대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69-291.
- 변창진, 김성희 (1980). 주장훈련 프로그램. 학생지도연구, 13(1), 51-85.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http://meta.narastat.kr/met
asvc/index.do?confmNo=11774&inputYear=2008](http://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1774&inputYear=2008)
- 보건복지가족부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http://www.law.go.kr/lsInfoP.do?ls
iSeq=122652&efYd=20120802#AJAX](http://www.law.go.kr/lsInfoP.do?ls
iSeq=122652&efYd=20120802#AJAX)
- 안주희 (2013).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연극치료 연구: 자기표현능력과 자아존중감 중심.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 유영희 (2010).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윤광빈 (2011). 가족사진을 활용한 가족기능 향상에 관한 연구: 포토테라피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윤혜미, 김혜래, 신영화 (2005). 아동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 이소영 (2009). 시설치매노인의 기억력 회상을 위한 사진치료 사례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9(1), 103-132.
- 이순자, 나성식, 김현경, 이효숙 (2012). 아동복지론. 서울: 정민사.
- 이운정, 박성현 (2011). 계슈탈트 예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과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계슈탈트치료연구, 1(2), 1-29.
- 이은경 (2002). 자기표현훈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 이장호 (1992). **상담심리입문**. 서울: 박영사.
- 이진혜 (2005). **점토를 이용한 미술치료가 정인지체 청소년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이진화 (2011). **PIE(Photo In Education)활동을 통한 미술표현능력 향상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 임선희, 원상화 (2011). 인지행동통합예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7(3), 63-84.
- 임정희 (2007). **놀이중심 자기표현훈련이 초등학생의 자기표현력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정경열 (2009). **감성과 논리력을 키워주는 사진교육 PIE**. 서울: 웅진리빙하우스.
- 정옥분 (2004). **발달심리학: 전생애 인간발달**. 서울: 학지사.
- 정재현 (2011). **초등 영재아동의 자원봉사 경험이 리더십 요인에 미치는 영향: 책임감, 대인관계 기술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조현주, 권정혜 (2002). 대인관계적 접근의 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2(1), 51-68.
- 최명심 (2000). **주장성 훈련이 아동의 대인 불안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최종순 (2003).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표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여성복지연구회 (2005). **가족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 한정식 (2004). **사진예술개론**. 서울: 눈빛.
- 허남순, 오정수, 홍순계, 김혜란, 박은미, 정익중 (2005). **빈곤아동과 삶의 질**. 서울: 학지사.
- 홍미선 (2010). **투사적 기법을 중심으로 한 사진치료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Adler, R. B. (1982).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Confidence in communication: A guide to assertive and social skills**, 김인자 역).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원전 1977 출판)
- Alberti, R. E., & Emmons, M. L. (1976). *Stand up, speak out, talk back!/: The*

- key to self-assertive behavior*. New York: Pocket Books.
- Berger, J. (1991). **영상커뮤니케이션과 사회** (*Ways of seeing*, 강명구 역). 서울: 나남. (원전 1972 출판)
- Ewald, W. (2001). *I wanna take me a picture: Teaching photography & writing to children*. Boston, Massachusetts: Beacon Press.
- Fensterheim, H., & Baer, J. (2009). **당돌한 심리학: 자기주장을 위한 표현의 기술** (*Don't say yes when you want to say no*, 이양희 역). 서울: 말글빛냄. (원전 1975 출판)
- Fromm, E. (1997).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ing*, 황문수 역). 서울: 문예출판사. (원전 1956 출판)
- Fryrear, J. L., & Krauss, D. A. (1983). *Phototherapy in mental health*. Springfield, Illinois: Charles C. Thomas.
- Heider, F.(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 Rakos, R. F., & Schroeder, H. E. (1980). *Self-directed assertiveness training*. New York: Bio Monitoring Applications.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Weiser, J. (2012). **사진치료기법** (*Phototherapy techniques: Exploring the secrets of personal snapshots and family albums*, 심영섭, 김준형, 이명신 역). 서울: 학지사. (원전 1993 출판)
- Wolpe, J. (1958). *Psychotherapy by reciprocal inhibitio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Wolpe, J., & Lazarus, A. A. (1966). *Behavior therapy techniques*. New York: Pergamon Press.

Abstract

The Effects of Phototherapy on the
Self-Ex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with Low-Income Children
: A Single-Group Study

Lee, Jeong Eun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Jae Hong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phototherapy on the self-ex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with low-income children.

For this purpose, researcher addressed these questions:

- 1) Does the phototherapy improve the self-expression of low-income children?
- 2) Does the phototherapy improve the interpersonal relations of

low-income children?

3) How does the self-ex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behavioral change of low-income children as the phototherapy progressed?

Participants consisted of four low-income children enrolled in the “B” Local Child Center, in Jeju City. They were in the fourth, fifth, and sixth grade at elementary school. They received 10 sessions of the phototherapy, twice a week, during 5 weeks. They responded to the scale to assess the self-ex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Researcher observed their behavior of the self-ex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using the checklist and recorded on video tapes and took notes of their activities during the interven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hototherapy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self-expression of low-income children.

Second, the phototherapy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interpersonal relations of low-income children.

Third, the phototherapy brought a positive behavioral changes in low-income children. So that they expressed themselves unhesitatingly and showed concern in their interactions with each other.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the phototherap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elf-ex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f low-income children. It seemed that this study supported the feasibility of using art therapy with photographs for effective in improving the self-ex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f low-income children.

Key words : phototherapy, low-income children, self-ex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

부 록

부 록1. 연구 도구

부 록2. 사진치료 회기별 활동 내용

부록1. 연구 도구

연구 참여 동의서

보호자님 귀하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석사학위논문 준비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학생입니다.

귀하의 동의는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사진치료의 효과를 알아보는데 있어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동은 총 10회기, 주 2회, 회기별 60분간 연구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연구 과정에서 연구내용 관련 검사지 작성과 행동관찰 자료 수집을 위한 동영상 촬영이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의 아동이 촬영된 저작물은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연구결과에서 아동의 이름이 밝혀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아동을 이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보호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석사과정

이정은 드림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2013년 12월

아동이름 :

보호자이름 :

(인)

촬영 동의서

1. 촬영의 목적은 사진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2.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3. 촬영에 동의한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는 보장되어집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2013년 12월

아동이름 :

보호자이름 :

(인)

검 사 지

안녕하세요.

이 검사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검사지에는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학교 성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여러분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연구자료로 이용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각 문항을 읽고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빠짐없이 대답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석사과정

이정은

이름 :

소속 : 초등학교 학년 반

성별 : 남 / 여

□ 자기표현 검사

다음은 아동의 자기표현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지입니다. 각 문항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하고 싶은 말을 참는 때보다 말하는 때가 많다.					
2. 나는 대화의 초반에 나의 의견을 분명히 이야기한다.					
3. 나는 말하는 내용이 분명하다.					
4. 내가 잘못했을 때 최소한의 사과만 한다.					
5. 나는 말을 할 때 예의가 바르다.					
6. 나는 변명하지 않고 나의 의견임을 정직하게 말한다.					
7. 나는 친절한 관계에서는 상대의 감정을 알고 말한다.					
8. 나는 친밀한 관계에서는 솔직하고 간단히 설명한다.					
9. 나는 친밀한 관계에서는 타협안을 제시한다.					
10. 나는 상대방이 알아듣게 큰소리로 말한다.					
11.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12. 나는 입안에서 중얼거리지 않고 또렷하게 말한다.					
13. 나는 억양이 자연스럽다.					
14. 나는 ‘예-’, ‘음-’ 등 말이 끊어지지 않고 유창하다.					
15. 나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말한다.					
16. 나는 말하기 전에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다.					
17. 나는 말할 때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고 말한다.					
18. 나는 말할 때 찡그리지 않고 얼굴 표정이 진지하다.					
19. 나는 손, 발을 움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한다.					
20. 나는 몸이 어딘가 굳어있지 않고 편안하게 말한다.					

□ 대인관계 검사

다음은 대인관계 기술을 측정하는 검사지입니다. 각 문항마다 해당되는 곳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느낌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2.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편이다.					
3.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진실한 마음을 가진다.					
4.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매우 친절한다.					
5. 나는 나 외에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 나는 항상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매사에 재치 있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8. 나는 다른 사람과 잘 화합하는 편이다.					
9.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의가 바르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고려한다.					
11. 나는 내가 속한 모둠에서 다른 사람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인다.					
12. 나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분위기를 잘 만든다.					

행동관찰기록표

아동명 : _____ 관찰자 : _____ 관찰일자 : _____ (회기)

행동관찰 문항		전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자기표현	상대방이 알아듣게 큰 소리로 말한다.					
	‘예-’, ‘음-’ 등 말이 끊어지지 않는다.					
	주저하지 않고 바로 말한다.					
	말할 때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한다.					
	손, 발을 움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한다.					
대인관계	다른 사람에게 나의 느낌을 잘 표현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동한다.					
	주어진 일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고려한다.					

부록2. 사진치료 회기별 활동 내용

<1회기 -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회기는 대상아동이 자신을 소개하고, 서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대상아동은 서로에게 별칭을 지어주고, 다양한 별칭 중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별칭을 선택하였다. 대상아동은 서로의 이름을 빗대어 별칭을 지어주었으며, 주로 친구들에게 많이 불리어지는 별칭을 선택하였다. 연구자는 사진치료 과정을 설명한 후에 대상아동이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다.

<p>1. 만나서 반갑습니다 - I</p> <p>2.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시지</p> <p>3. 나의 친구들에게 자주 불리어지는 별칭은 무엇인가요? 이웃 친구의 별칭</p> <p>4. 친구들한테서 받은 별칭은 무엇인가요? 동료님</p> <p>5. 나의 이름을 빗대어 친구들한테서 받은 별칭은 무엇인가요? 동료님</p> <p>6.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시지</p>	<p>1. 만나서 반갑습니다 - I</p> <p>2.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양파링</p> <p>3. 나의 친구들에게 자주 불리어지는 별칭은 무엇인가요? 양파링</p> <p>4. 친구들한테서 받은 별칭은 무엇인가요? 양파링</p> <p>5. 나의 이름을 빗대어 친구들한테서 받은 별칭은 무엇인가요? 양파링</p> <p>6.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양파링</p>	<p>1. 만나서 반갑습니다 - I</p> <p>2.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고등어</p> <p>3. 나의 친구들에게 자주 불리어지는 별칭은 무엇인가요? 고등어</p> <p>4. 친구들한테서 받은 별칭은 무엇인가요? 고등어</p> <p>5. 나의 이름을 빗대어 친구들한테서 받은 별칭은 무엇인가요? 고등어</p> <p>6.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고등어</p>	<p>1. 만나서 반갑습니다 - I</p> <p>2.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황인욱</p> <p>3. 나의 친구들에게 자주 불리어지는 별칭은 무엇인가요? 시그널 그라운드</p> <p>4. 친구들한테서 받은 별칭은 무엇인가요? 시그널 그라운드</p> <p>5. 나의 이름을 빗대어 친구들한테서 받은 별칭은 무엇인가요? 시그널 그라운드</p> <p>6.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시그널 그라운드</p>
A	B	C	D

[그림 부-1] 1회기에 수행한 아동별 작업 결과

A아동은 별칭을 ‘소시지’로 선택하였고, 친구들이 그렇게 불러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진치료 과정에서 꼭 찍고 싶은 사진은 ‘예쁜 풍경사진’이며, 지켜야 할 규칙은 ‘사진으로 서로 놀리지 않기’이다.

B아동은 별칭을 ‘양파링’으로 선택하였고, 선택한 이유는 A아동이 지어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진치료 과정에서 꼭 찍고 싶은 사진은 ‘여러 친구들을 볼 수 있는 단체사진’이며, 지켜야 할 규칙은 ‘수업시간에 떠들지 않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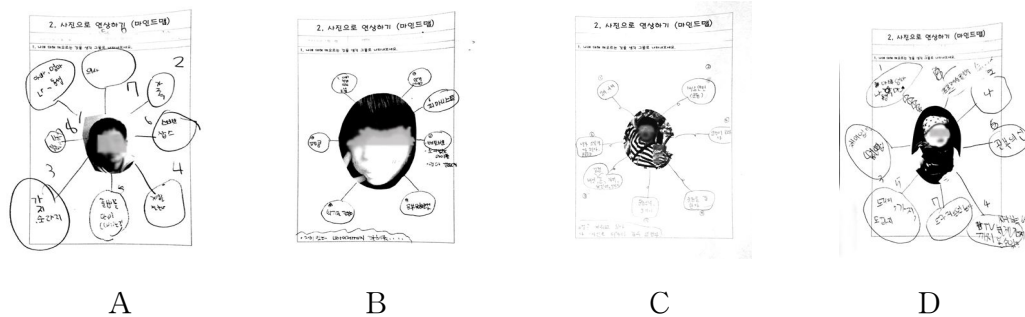
C아동은 별칭을 ‘고등어’로 선택하였고, 선택한 이유는 친구들이 그렇게 불러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진치료 과정에서 꼭 찍고 싶은 사진은 ‘눈썰매를 타는 사진’이며, 지켜야 할 규칙은 ‘사진 수업에 관련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기’이다.

D아동은 별칭을 ‘왕 완두콩’으로 선택하였고, 선택한 이유는 ‘그냥’이라고 답했다. 사진치료 과정에서 꼭 찍고 싶은 사진은 ‘맛있는 소시지 사진’이며, A아동의 별명을 놀리듯이 표현하였다. 사진치료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은 ‘공룡’이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며, 질문과 관계없는 대답을 하였다.

이 회기에서 A아동과 D아동은 회기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B아동은 A아동과 D아동이 이야기를 나누면 바로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C아동은 다른 아동이 아직 활동지 작성을 끝내지 못했는데 본인 작성이 끝나면 ‘끝!’이라고 외쳤다. D아동은 회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있거나 눈을 비비거나 머리카락을 자주 만졌다.

<2회기 - 사진으로 연상하기>

이 회기에서 대상아동은 사진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작업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자는 대상아동이 과제(사진촬영)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아동에게 동일한 카메라를 전달하였다. 또한 대상아동에게 카메라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색종이에 네모난 구멍을 만들어 카메라 렌즈의 역할을 알려주었다. 이를 통해 대상아동은 사진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림 부-2] 2회기에 수행한 아동별 작업 결과

A아동은 자신의 장점은 ‘게임을 잘하는 것’, 단점은 ‘동생을 많이 때리는 것’이며, 회기 소감으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가 웃기고, 재미있었다.’라고 하였다.

B아동은 자신의 장점은 ‘악기를 잘하는 것’, 단점은 ‘공부를 못하는 것’이며, 회기 소감으로 ‘발표할 때 부끄러웠고, 나와 다른 친구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C아동은 자신의 장점은 ‘운동을 잘하는 것’, 단점은 ‘성격이 급한 것’이며, 회기 소감으로 ‘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었고, 친구에 대해 알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D아동은 자신의 장점은 ‘새벽6시까지 TV를 볼 수 있는 것’, 단점은 ‘도라지를 먹지 못하는 것’이며, 회기 소감으로 ‘아주 조용했음’이라고 말하며 본인의 행동과 상반된 표현을 했다. 그리고 가족소개를 할 때 동생을 ‘악마’라고 부르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 회기에서 대상아동은 종이구멍놀이와 카메라 사용법을 설명하는 동안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고 회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회기에 비해 대상아동은 타인이 말을 할 때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들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3회기 - 표정으로 말해요.>

이 회기는 대상아동이 사진을 통해 감정을 표현해보는 사진치료가 진행되었다. 대상아동은 기쁨, 슬픔, 행복, 화, 무서움, 놀람의 표정을 촬영한 사진을 선택하고, 자신의 사진에 대해 구성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연구자는 대상아동에게 사진의 제목, 사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게 하였고,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정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A

B

C

D

[그림 부-3] 3회기에 수행한 아동별 작업 결과

A아동의 사진제목은 ‘다양한 표정’이다. 가장 표현하기 쉬운 것은 ‘행복한

표정'이며, 이유는 매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무서운 표정'이며, 이유는 별로 겁을 먹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B아동의 사진제목은 '무지개의 표정'이다. 가장 표현하기 쉬운 것은 '기쁜 표정'이며, 이유는 기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겁먹은 표정'이며,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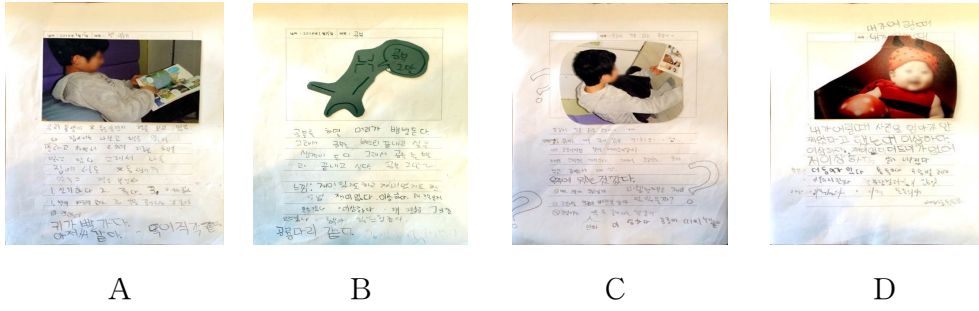
C아동의 사진제목은 '여러 가지 표정들'이다. 가장 표현하기 쉬운 것은 '기쁜 표정'이며, 평소에 웃는 표정을 가장 많이 짓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화난 표정'이며, 화가 나는 상황은 친구가 놀릴 때라고 하였다.

D아동의 사진제목은 '재미있는 표정'이지만, 촬영한 사진은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모든 감정에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D아동은 가장 표현하기 쉬운 것은 '멍한 표정'이며, 평소에 멍한 표정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놀라는 표정'이라고 하였다.

이 회기에서 대상아동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말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또한, 모둠활동에서 사진신문을 만들 때, 대상아동은 모두 행복한 표정 사진을 선택하였고, 제목은 모두 동의하여 '우리들이 행복할 때'로 정하였다. 대상아동은 회기에 대한 소감으로 주제에 맞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을 때 평소에는 못해본 표정이어서 기분이 이상했고, 다른 친구의 사진을 볼 수 있어서 재미있다고 하였다.

<4회기 - 사진일기쓰기>

이 회기에서 대상아동은 자신의 생활을 탐색해보고, 자신의 하루를 사진과 글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자는 대상아동이 촬영한 사진을 선택한 후 일기를 작성하고, 구성원에게 자신의 하루를 소개해보도록 하였다.



[그림 부-4] 4회기에 수행한 아동별 작업 결과

A아동의 사진은 동생의 책 읽는 모습이다. 제목은 ‘책 읽기’이며, 일기는 집에서 자신도 책을 보겠다는 내용이다.

B아동의 사진은 종이에 화난 표정을 그린 그림이었다. 제목은 ‘공부’이며, 일기는 공부를 그만하고 싶다는 내용이다.

C아동의 사진은 A아동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함께 촬영한 것이다. 일기는 책을 읽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책을 좋아하고 싶고, 많이 읽고 싶다는 내용이다.

D아동의 사진은 2회기 마인드맵 작업을 할 때 선택했던 자신의 아기 때 사진이다. D아동은 사진을 보며 아기 때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제목은 ‘내가 어릴 때’이며, 일기는 자신의 아기 때 사진을 엄마가 찍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진이 있으니 이상하다는 내용이다.

연구자가 대상아동에게 사진을 찍으면서 느낀 점을 질문하니, C아동은 ‘그림은 못 그릴 수도 있는데 사진은 찍으면 잘 나온다.’고 말하며,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회기는 글을 작성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상아동이 생각을 많이 하고 차분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5회기 - 좋아요! 싫어요!>

이 회기는 대상아동이 찍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의 사진을 통해 자신을 탐색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대상아동이 촬영한 사진을 보며 각 아동의 긍정적·부정적 생각을 이야기해보도록 하였다.



A

B

C

D

[그림 부-5] 5회기에 수행한 아동별 작업 결과

A아동은 좋아하는 것은 ‘닌텐도 게임’이고, 싫어하는 것은 ‘홍삼을 마시는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자가 ‘사진에서 보충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니 ‘홍삼을 초콜릿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답했다.

B아동은 좋아하는 것은 ‘나의 모습’이고, 싫어하는 것은 ‘책 읽는 꼬맹이’라고 하였다. 좋아하는 것의 이유는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을 찍은 사진은 A아동이 책을 읽는 모습이며, 이유는 ‘못생겼다.’, ‘보고 싶지 않다.’이다.

C아동은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맘’이고, 싫어하는 것은 ‘불행한 절’이라고 하였다. 싫어하는 이유는 ‘있는 자체가 싫다.’이며, 연구자가 ‘사진에서 보충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니 ‘교회로 바꾸고 싶다.’라고 답했다.

D아동은 좋아하는 것은 ‘김치’이고, 싫어하는 것은 ‘고사리’라고 하였다. 이유는 ‘고사리는 먹고 싶지 않고, 고사리가 닌텐도 게임기로 변했으면 좋겠다.’이다.

이 회기에서 대상아동은 다른 회기에 비해 사진을 선택하는 시간에 높은 집중력을 보였으며, 활동지를 작성할 때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찍은 사진이 구분되도록 꾸미는 모습을 보였다. 대상아동은 좋아하는 것을 찍은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표정이 밝았으며, 싫어하는 것을 찍은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싫다.’, ‘맛이 없다.’라고 하며 분명하게 자기표현을 하였다. 또한, 대상아동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귀엽다.’, ‘아쉽다.’, ‘사랑스럽다.’ 등의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6회기 - 나와 닮았어요.>

이 회기는 대상아동이 자연에서 자신과 닮은 것을 표현한 사진으로 사진치료가 진행되었다. 대상아동은 사진 속 피사체에 자신을 투사해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A B C D

[그림 부-6] 6회기에 수행한 아동별 작업 결과

A아동의 사진제목은 ‘아무거나 사진’이며, 사진을 찍은 이유는 잎이 많고 푸르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자신과 대나무의 닮은 점이 무엇인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니 머뭇거리며 ‘몰라요.’라고 답했다. A아동이 대답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자 B아동은 또래에 비해 키가 작은 A아동을 놀리며 ‘A아동보다 대나무가 더 키가 크다.’라고 말했다. 연구자가 ‘대나무처럼 키가 크고 싶어요?’라고 질문하니, A아동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B아동의 사진제목은 ‘MY 얼굴’이다. 연구자가 사진을 찍은 이유를 물으니, B아동은 사진 속 호박이 자신의 얼굴과 닮았고, 어릴 적 별명이 ‘호박’이라고 말하며 회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가 ‘사진 속 호박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니, B아동은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답했고, 부끄러워하며 종이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였다.

C아동의 사진은 조화로 꾸민 해바라기이며, 제목은 ‘노란 해바라기’이다. 사진을 찍은 이유는 밝은 것이 자신과 닮았으며 노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C아동은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며, ‘예쁘다.’, ‘화려하다.’, ‘기분이 좋다.’라고 표현했다.

D아동의 사진제목은 ‘왕 완두콩의 마음’이다. 이는 자신의 별칭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연구자가 ‘무엇을 찍은 것인가요?’라고 질문하니, C아동은 사

진에서 작게 찍힌 선인장을 가리켰고, ‘가시가 있는 것이 자신과 닮은 점’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선인장은 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동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모둠활동에서 사진신문의 제목을 정할 때, C아동은 ‘자연에서 닮은 나의 모습’, D아동은 ‘착한 마음씨’라며 각자의 의견을 말하였다. 대상아동은 의견이 나뉘자 다수결로 제목을 정하며,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7회기 - 소중한 사람>

이 회기는 대상아동이 찍은 가족사진으로 사진치료가 진행되었다. 대상아동은 가족사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다른 아동에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 부-7] 7회기에 수행한 아동별 작업 결과

A아동의 사진은 아빠의 모습이다. 제목은 ‘우리 아빠’이며, A아동은 사진 속 아빠와 놀러 다닌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연구자가 ‘사진 속 아빠와 무엇을 하고 싶나요?’라고 질문하니, A아동은 ‘TV를 보고 싶다.’라고 답했다.

B아동의 사진은 동생의 모습이며, 제목은 ‘우동(우리 동생)’이다. B아동은 동생과 싸운 것이 가장 기억에 남지만, 동생을 생각하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연구자가 ‘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니, B아동은 ‘누나, 고마워.’라고 답했다.

C아동의 사진은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며, 제목은 ‘우리 가족들’이다. C아동

은 사진 속 부모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경험으로 ‘썰매를 타고 놀아줬을 때’라고 말했다. 연구자가 ‘사진 속 부모님이 C아동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질문하니, C아동은 ‘사랑해.’라고 말하며, ‘나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답했다.

D아동의 사진은 동생을 찍었으며, 제목은 ‘진격의 고릴라’이다. 연구자가 ‘동생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라고 질문하니, D아동은 ‘책과 콩나무, 키가 더 클까?’라고 답했다. 이는 D아동이 동생에 대해서 또래에 비해 체격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가 ‘사진 속 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니, D아동은 ‘울지 마.’라고 답했다. 그리고 ‘동생이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나를 괴롭힌다.’라고 투정을 부렸지만, 연구자가 ‘동생의 장점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니, D아동은 말없이 사진을 보면서 ‘같이 잘 놀아주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대상아동은 소중한 가족의 사진을 보며 만족해하는 표정을 지었고, 자신이 찍은 사진과 관련된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활동지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D아동은 동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회기에서 대상아동은 다른 아동이 발표를 할 때 산만하지 않고, 주의 깊게 듣는 모습을 보였다.

<8회기 - 나와 너, 너와 나>

이 회기는 대상아동이 스스로를 찍은 사진과 타인이 자신을 찍어준 사진을 통해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해보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대상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모습을 찍어온 사진으로 사진치료를 진행하여 구성원의 친밀감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림 부-8] 8회기에 수행한 아동별 작업 결과

A아동의 사진제목은 ‘나’이다. 연구자가 ‘만약 다시 사진을 찍는다면 어떻게 찍고 싶은가요?’라고 질문하니, A아동은 ‘콧구멍을 작게 하고 싶다.’라고 답했다. 또한 D아동이 찍어 준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표정이 좋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라고 하였다.

B아동의 사진제목은 ‘양과랑’이다. 이는 자신의 별칭을 사용한 것이다. 연구자가 ‘사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니, B아동은 ‘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웃이라고 답했다. ‘사진 속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B아동은 ‘왜? 아무 말이 없니?’라고 답했다. 그리고 A아동이 찍어 준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웃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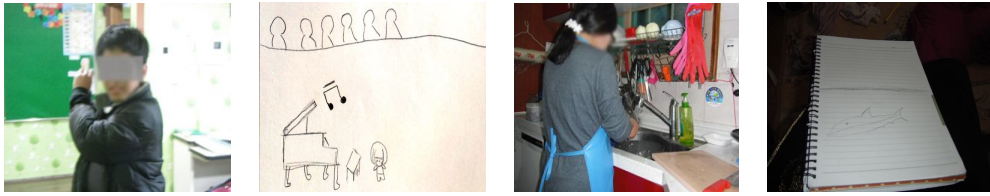
C아동의 사진제목은 ‘나의 셀카와 친구들이 나를 찍어 준 사진’이다. 연구자가 ‘사진을 찍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라고 질문하니, C아동은 ‘밖에서 찍어서 기분이 좋았고, 다음에 눈이 쌓인 풍경에 가서 찍고 싶다.’고 답했다. 그리고 B아동이 찍어 준 사진을 선택하며 자신의 모습이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라고 하였다.

D아동의 사진제목은 ‘나의 분신’이다. D아동은 C아동이 찍어 준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였고, 이유는 사진을 찍은 거리가 적당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대상아동은 서로 찍어준 사진을 전달하면서 얼굴표정, 사진배경, 촬영 상황을 회상하는 등 다양한 대화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회기에서 대상아동은 다른 회기에 비해 목소리의 크기가 커지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고,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하였다.

<9회기 - 나의 꿈>

이 회기는 대상아동이 자신의 장래희망을 표현한 사진으로 사진치료가 진행되었다. 대상아동은 자신의 미래 모습을 사진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욕구를 탐색해보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A

B

C

D

[그림 부-9] 9회기에 수행한 아동별 작업 결과

A아동의 사진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는 야구선수를 흉내 낸 모습이며, 제목은 ‘나의 꿈’이다. A아동은 사진을 설명할 때 ‘나는 내 꿈을 찾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으며, ‘삼진왕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가 ‘사진 속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니, A아동은 ‘열심히 해라.’라고 답했다.

B아동의 사진은 피아노 연주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며, 제목은 ‘피아니스트 내 꿈’이다. B아동은 사진을 설명할 때 ‘나는 공연을 생각했다.’라고 말했으며, 사진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나, 피아노, 관객’이라고 하였다. 연구자가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고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니, B아동은 ‘열심히 해.’라고 답했다.

C아동의 사진은 요리사를 표현하기 위해 요리를 하는 엄마를 촬영한 것이며, 제목은 ‘나의 미래’이다. C아동은 사진을 설명할 때 ‘나는 양식 요리사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연구자가 ‘자신이 찍은 사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니, C아동은 ‘열심히, 공부 잘해서 요리사 꼭 하자.’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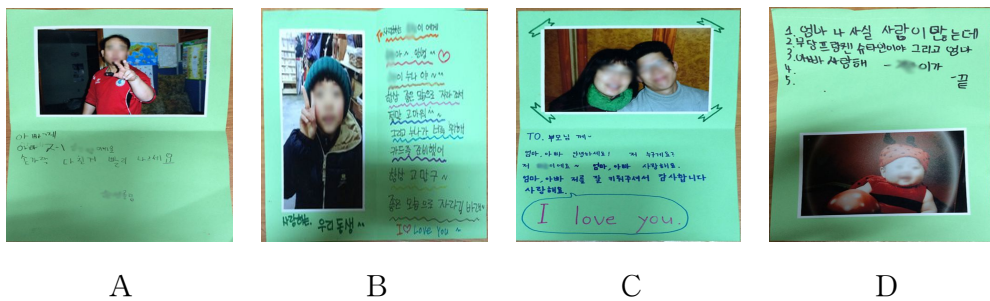
D아동의 사진은 상어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며, 제목은 ‘동물 사육사’이다. D아동은 사진을 설명할 때 ‘나는 동물사육사를 생각했고, 모든 동물을 좋아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구자가 ‘자신이 찍은 사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니, D아동은 ‘안녕, 상어야, 너, 먹이 줄까?’라고 답했다.

이 회기에서 대상아동은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찍은 것인지, 꿈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며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서로에게 ‘열심히 해.’, ‘꼭 꿈을 이루길 바랄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응원해주었다.

B아동과 D아동은 자신의 꿈을 사진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환경적, 현실적 조건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사진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회기 - 사진엽서 만들기>

이 회기는 마지막 회기이며, 10회기동안 대상아동이 사용했던 사진으로 사진치료가 진행되었다. 대상아동은 지난 회기를 되돌아보고, 소감을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자는 대상아동이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하여 사진엽서를 만들어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아동은 자신의 사진으로 엽서를 제작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림 부-10] 10회기에 수행한 아동별 작업 결과

A아동은 가장 좋은 사진으로 7회기(소중한 사람)에 사용했던 아빠사진을 선택했다. A아동의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은 8회기(나와 너, 너와 나)에 사용했던 자신이 찍어 준 D아동의 얼굴 사진이며, 이 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D아동의 얼굴표정이 좋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마지막 회기를 마치며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니, A아동은 ‘잘했어.’라고 답했다.

B아동은 가장 좋은 사진으로 A아동과 동일하게 7회기(소중한 사람)에 사용했던 동생사진을 선택했다. B아동의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은 8회기(나와 너, 너와 나)에 사용했던 자신이 찍어 준 C아동의 예쁜 얼굴 사진이다. 연구자가 ‘마지막 수업을 마치며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니, B아동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답했다.

C아동은 가장 좋은 사진으로 7회기(소중한 사람)에 사용했던 부모님 사진을 선택했다. C아동의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은 8회기(나와 너, 너와 나)에 사용했던 D아동의 얼굴 사진이며, 이 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얼굴이 크게 나온 D아동의 모습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마지막 수업을 마치며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니, C아동은 ‘진짜, 진짜 잘했어. ○○아, 파이팅!’라고 답했다.

D아동은 가장 좋은 사진으로 2회기(사진으로 연상하기), 4회기(사진일기쓰기)에 사용했던 자신의 아기 때 사진을 선택했다. D아동의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은 9회기(나의 꿈)에 사용했던 A아동이 야구를 하는 사진이며, 이 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야구를 하는 모습이 좋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마지막 수업을 마치며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니, D아동은 ‘잘했다. 나.’라고 답했다.

이 회기에서 대상아동은 마지막 회기임을 알고 긴장이 풀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상아동은 사진을 감상하고, 소감을 나누는 동안 산만하고 흥분된 행동으로 회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